

“학생들의 도전 · 모험에 작은 힘 실어주고 싶어”

‘컴퓨터의사’ 안철수 & ‘시골의사’ 박경철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이 대담 강연을 다닌 지 1년이 넘었다. 의사 출신이면서 의사가 아닌 직업, 벤처기업가와 주식투자가로 유명해진 두 명이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 또 서울이 아닌 지방 대학에만 강연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멘토’로 꼽히고 있는 두 사람의 근황을 직접 만나 들어봤다.

글·사회 이은정 KBS 과학전문기자 ejlee@kbs.co.kr



사회 : 요즘 두 분이 같이 인터뷰도 많이 하고 TV에도 나오던데 굉장히 자주 만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방대 순회 대담 강연을 하게 됐습니까?



안철수 :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대담 강연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강연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는 것을 청중이 들으니까 훨씬 귀에 와 닿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면 해야지 마음먹었죠. 이화여대에서 리더십 강연 요청이 왔는데 주최측에 대담식 강연을 하겠다고 하고 사람을 찾다 보니 박경철 원장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박 원장이 저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많은 인터뷰를 당했지만 상당히 마음이 잘 통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박경철 : 처음에는 일회적인 강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강연 말미에 제가 안 교수님께 “앞으로 이런 대담 강연을 계속하자”고 제안했고 안 교수님이 “그러자”고 답하는 바람에 저한테 위이셨죠. 보통 서울 지역 학생들은 강연을 들을 기회가 많으니까 강연이 별로 없는 지방 대학에서 하기로 했고, 지방대에서도 그 지역의 최고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 하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함께 강연을 다닌 게 1년이 넘었고 이제 10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방학 때까지 한두 건의 강연이 남아있습니다. 동반 강연도 해야 하고 또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요즘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만납니다. 처음에는 뭐랄까, 제 입장에서 안철수 교수님이 선배기도 하고, 쉽게 농담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다보니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편해진 상태입니다.

사회 : 올해 초 두 분이 함께 모 방송사의 신년특집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신선했습니다. 특히 안 교수님이 이효리를 모른다고 해서 ‘효리의 굴욕’이라고 화제가 됐었는데요.



박 : 네. 그날 안 교수님이 어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김재동 씨가 “하하”의 곱창집에 갔다”고 하자 안 교수님이 “하하라는 곳이 그렇게 맛있는 곳인가요?”라고 물었죠. 그 다음에 “이효리가 왔을 때 갔어야 했다”고 하니 “효리? 이름이 이상하네요”라고 답했습니다. 현빈은 ‘태극기 휘날리며’에 나오는 ‘원빈’과 헷갈렸고요. ‘아이유’는 아예 몰랐죠. 사실 저도 연예인을 잘 모르는 편인데 안 교수님은 증상이 심각합니다.



안 : 제가 워낙 TV를 안 봐서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예 TV 자체가 없고요. 딸은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와이프랑 둘이 사는데 둘 다 책만 보고 있으니 그쪽 대화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도 사는데 별로 불편이 없고 사실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안 교수는 지금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이유가 남자냐, 여자냐고 질문했다).

사회 : 박 원장님은 집은 안동에 있고, 매일 라디오 진행도 하는 등 아주 바쁜데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박 : 저는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월요일 새벽에 서울에 올라오고 금요일 저녁에 안동으로 내려갑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라디오 방송을 하니까 5시쯤 일어나 방송 준비를 합니다. 9시에 방송이 끝나면 그때부터 강연 다니고 글 쓰고 합니다. 칼럼은 일간지 3곳, 주간지 2곳 등 한 달에 12쪽지를 쓰고 있고, 강연은 아무리 적어도 월 30회 이상 다닙니다.



다. 남들이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나고 하는데 저는 요일을 정해놓고 일을 해요. 예를 들어 강연은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다닌다, 글은 수요일에만 쓴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죠. 제가 방송에 나가는 것은 녹화일이 항상 금요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절하다 보니 남들이 보기엔 엄청 바쁜 것 같은데 제 생활은 잘 관리되는 편입니다.

사회 : 안 교수님은 최근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옮기셨지요? 이사도 해야 하고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안 : 네, 지난 2월에 결정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임기가 지난 2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3월 1일 발령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KAIST는 학기가 2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학기 중에 옮기기는 어렵죠. 그래서 1학기를 마치고 6월부터 서울대에 나가게 됐습니다. '인사'라는 게 결정이 되면 바로 옮기는 게 좋은데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 알게 되다 언론에 까지 공개돼 부담스러웠습니다. 저와 함께 와이프도 옮기게 돼서(안 교수의 부인은 김미경 교수로 KAIST에서 서울대 의대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이사도 해야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사회 : KAIST만 해도 훌륭한 교육기관인데 서울대로 옮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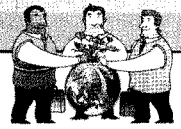


안 :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야겠죠. KAIST에서는 그냥 교수였죠. 그래서 학교 안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대학원장으로 가니까 학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육 행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경영은 해봤어도 행정은 안 해봤습니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만들어진 지 2년에 불과하고 캠퍼스가 관악에 있지 않고 수원에 있습니다. 다른 능력 있는 교수님을 끌어들이는 동인이 부족하죠. 만약에 서울대의 다른 학과 교수나 학장을 제안했다면 안 갔을 겁니다. 하지만 융합기술대학원은 거의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융합 학문은 아직 태동기이고, 서울대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과학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문학이나 경영쪽으로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은 인문학과 공학이 만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 것이죠.

사회 : 말이 나온 김에 KAIST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 : 3년 정도 교수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입니다. 학생교육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교수가 평가를 제대로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 교육에 시간을 많이 쓰면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죠. 대학원생은 실험실에서 사제 관계가 아니라 노사 관계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학을 교육



기관으로 다시 세우는 게 급선무입니다. '무슨무슨 대학 평가에서 몇 위를 했다'는 것에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건물을 많이 짓는 외부적인 팽창보다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살이 멈춘 것은 부모님들이 놀라서 연락을 하고 관심을 보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살 충동을 멈춘 것에 불과하지,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박 : 저도 우리 한국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KAIST를 통해 불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KAIST 내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버려두면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하고 더 높은 곳에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대학생이나 청년 세대를 만나보면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친구들만 고민을 안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선두에 있다고 고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다 같이 벽에 부딪혀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기성세대가 자신의 젊었을 때만 생각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KAIST 사태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문제가 응축된 것 같습니다.



사회 : 정치쪽으로 얘기를 돌려볼까요? 박경철 원장님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는데 기존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 : 글썄, 이제 오래된 얘긴데요(웃음). 그때는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다시 하라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시는 내가 국민의 한 사람이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진하게 시작한 거죠. 그런데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한 3개월간 '정치'라는 통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안 : 진짜 잘하는 정치인, 잘하는 관리자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당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90% 이상을 자기 말만 하고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영수 회담 같은 것을 자주 하는데 속마음을 서로 얘기 안하는 것 같아요.



사회 : 안 교수님께 자주 정치하라고 박 원장님께서 부추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박 : 저는 안철수 교수님에게 대한민국의 운전을 맡기자고 외부에 나가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개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 비쳐지는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러 이미지'와 그 사람이 가진 내용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안 교수님은 3년 정도 옆에서 지켜봤더니 언론에 나오는 이미지가 만들어낸 것이나 과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교수님에게 좀 더 세상을 위한 큰일을 하라고 옆에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을 위한 일을 하시는 게 안 교수님께 주어진 사회적 책임인 것 같습니다.



안 : '잉여 인간'이라는 말이 있죠. 이 세상에 90%는 잉여인간이고, 1%는 완전히 앞서가고, 9%는 미리 보는 눈을 갖고 따라 간다고 합니다. 세상은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봐야 하고 본인 스스로 9%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9%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1%에 해당하는 인재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총선 시즌만 되면 공천을 받는다, 어디 후보로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저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 : 강연을 하러 전국의 주요 도시는 다 돌아다니신 셈인데 앞으로도 두 분이 같이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안 : 앞으로는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계층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는 대학만 가니까 학생이나 교직원 같은 대학 구성원이 주가 되죠. 다른 일반인들이 강연을 들을 기회가 없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듣고 싶어도 학교 측에서는 공간 문제 때문에 참여를 제한해요. 강연을 다녀보니 고민하는 젊은 층들이 상상외로 많아요. 그래서 개방 폭을 확대해서 특정 대학이 아닌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평일 낮이 아니라 주말도 이용하고, 형식도 다양하게 하고 횟수도 늘릴 예정입니다. 또 방학 기간에 접어들면 저로서는 강의 부담도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박 : 사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럴줄 몰랐는데 우리 사회에 강연에 대한 요구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발화점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교수님과 저는 학생들에게 도전을 하라고 때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모험이 무모한 일이 되지 않도록 사회를 바꿔나가는 데 작은 힘이나마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을 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도 다가오는 여름이 변화의 첫발을 내딛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ST**